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자료

- ▣ 회의일시 : 2020. 5. 22. (금), 14:00 ~ 16:1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공지사항 및 투표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	3
---	------------------------------	---

【보고사항】

1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현황 보고	21
---	--------------------	----

심 의 사 항

1. 「가야고분군」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

가. 제안사항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시 제시된 조건의 보완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가야고분군」은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김해·함안 가야고분군」과 「고령 대가야 고분군」으로 각각 등록되었으며, 2015년 3월 우선등재 목록 선정 당시 두 잠정목록을 통합해서 추진하기로 함
- 우선등재 목록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 신청 사항에 대해 2019년 3월 <조건부 가결> 하였음
- 2019년 7월 본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유지>키로 심의하였으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에서 신청서를 보완 수정하여 이번에 제출하였기에 등재신청 후보 조건부 사항 해소 여부를 재심의하고자 함

다. 대상유산 및 진행경과

- 신청자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 대상유산 : 「가야고분군」(7개 지역 고분군)
 - 구성유산 :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유네스코에 「김해·함안 말이산 가야고분군」,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잠정목록 등록('13.12월)
 - 유네스코에 「가야고분군」 7개 유산을 포함하는 잠정목록 등록('19.1.28.)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경과
 - 2015년도 본 위원회 제1차 회의(2015.3.10.) [우선등재 추진대상] / <조건부 가결>
 - 대상 : 3개 지역 고분군(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 해당 지자체 등 관련 기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조건

- 2017년도 본 위원회 제5차 회의(2017.12.15.) [등재신청후보] / <보류>
 - 완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산들을 추가할 것
 - OUV 보완, 신청기준 재 서술, 국내외 비교연구 심화, 완전성 재서술, 보존관리계획 구체화 등 등재신청서에 대한 전반적 보완 검토
- 2018년도 본 위원회 제4차 회의(2018.12.21.) [등재신청후보] / <보류>
 - 대상 : 7개 지역 고분군
 - 전문가 검토의견을 보완하여 위원회에서 추후 재심의함(3월 이내)
- 2019년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2019.3.21.) [등재신청후보] / <조건부 가결>
 - 역사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팀 보강 및 관련 전문가 참여, 비교연구 재작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산에서의 구체적 근거 제시
- 2019년도 본 위원회 제3차 회의(2019.7.30.) [등재신청후보] / <조건부 가결 유자>

라. 심의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등재신청 후보 선정시 제시된 조건에 대한 보완 여부를 심의
- 해당유산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 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등재신청서 주요 내용(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 상세 내용은 추진단 설명자료(별도) 참조

1) 유산 설명

* 등재신청서 158p, 「3.3.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술문」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 (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신청유산인 7개의 고분군은 연맹왕국을 긴 기간 유지하면서 주변국의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주었던 가야연맹의 모습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유산이다.

동 시기 동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세력이 등장하여 고대국가로 발전했던 것과 달리, 가야는 연맹왕국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소멸하였다.

가야의 고분군은 가야연맹을 구성하면서 한반도 남부에서 발전했던 7개 가야의 중심지에 1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고분군의 묘제와 부장품을 통해 가야연맹의 성립과 발전, 소멸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간략한 종합

- 신창유산은 한반도 남부에서 가야연맹을 구성했던 7개 가야의 중심지에 1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조성된 7개의 고분군이다. 대성동고분군, 말이산고분군, 옥전고분군, 지산동고분군, 송학동고분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으로 구성되었다. 7개의 고분군에서 나타나는 묘제와 부장품을 통해,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통된 문화권을 형성하여 주변 강대국에 대응하면서 발전해 나갔던 가야연맹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 이 시기 동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세력이 등장하여 고대국가로 발전했던 것과 달리, 가야는 각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등한 수준의 여러 정치세력이 연맹왕국을 형성하였다. 가야 각 국의 중심지에 조성된 7개의 고분군은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갔던 가야연맹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야 각 국은 자율성이 강한 정치세력이지만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자원의 편중과 폐쇄적인 환경요인을 극복하고, 공통된 문화권을 형성하여 주변 강대국에 대응하면서 발전하였다.
- 7개 고분군에서 나타나는 입지, 군집, 배치, 크기 등 묘제와 토기로 대표되는 부장품을 통해 7개 가야가 연맹왕국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릉지 능선을 따라 고분이 입지하고, 권력의 크기를 고분군 내 군집과 배치로 표현하며, 길고 폭이 좁은 형태의 매장부 평면구조를 유지하는 묘제 조성 방식은 가야연맹을 구성한 각 국에서 공유되었으나, 세부적인 발현 방식은 각 국의 세력범위에 따라 구별되어 나타난다. 또한 부장품 중 가야식 토기는 120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한 것으로 기종구성과 기형은 가야연맹을 구성한 각 국에서 공유하였으나, 문양이나 투창 등 세부적인 속성은 각 국별로 뚜렷이 구별되어 나타난다.
- 가야에서는 권력을 상징하는 기념물로서 정치적 중심지에 고분군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는 가야가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나아가기 이전인 연맹왕국의 단계에서 멸망했기 때문이다. 가야 각 국의 중심지에 조성된 고분군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가야의 고분군은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중심지와 주변지의 수직적 권력관계가 확립되기 이전, 개별적 세력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비교적 대등하게 수평적으로 결합했던 가야연맹의 모습을 보여준다.
- 가야는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멸망하였기에 다른 국가들과 같이 권력을 표현하는 다양한 기념물들이 구성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는 권력을 상징하는 기념물로서 정치적 중심지에 고분군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단계였다. 특히 가야 각 국의 중심지에 조성된 고분군에는 정치·사회·문화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어 가야 각 국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야의 고분군은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중심지와 주변지의 수직적 권력관계가 확립되기 이전, 개별적 세력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비교적 대등하게 수평적으로 결합했던 가야연맹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 완전성

- 이 유산은 전체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며, 개별적으로 완전성을 충족한다. 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고분군의 묘제와 부장품을 통해 입증된다. 가야 각 국의 특성과 연맹으로서의 동질성을 보여주는 가야식 석곽묘와 가야식 토기는 7개의 고분군에 온전히 남아있다.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할 중요한 부분은 모두 유산구역이나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 신청유산의 일부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지에 변형이 있으나 유산의 가치를 증명하는 요소들은 충분히 보존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한 법적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추었으므로 추후 예상되는 위해는 거의 없다. 또한 일상 모니터링은 해당 유산의 고분박물관 담당자에 의해 수행중이며, 문화재청에 의해 3~5년마다 정기 모니터링이 수행중이다.

○ 진정성

- 신청유산은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전통적 기법과 관리체계, 입지와 주변환경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유산은 가야연맹 당시의 구릉지와 배후산지에 조성되었으며, 처음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원래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발굴조사를 통해 축조 당시의 형태와 디자인이 확인되었다.
- 신청유산의 복원과 정비는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당시의 고분 축조 기술을 활용하여, 공인된 전문인력에 의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
- 신청유산은 7개의 지역에 나뉘어 분포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보호체계 하에서, 충분한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유산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발굴된 고분은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토하거나 보호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부장품은 박물관 등 전문기관에서 보존, 전승함으로써 유산의 진정성에 기여한다.

2) 조건부 보완 사항 ※ 세부내용 불임

[역사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팀 보강 및 관련 전문가 참여]

- 분야별 상근 집필진을 확충, 역사성 보완 및 신청서 서술의 일관성 제고

[비교연구 재작성]

○ 비교연구 대상

<p>'19.7월</p>	<p>기 등재된 세계의 장묘유산 동아시아의 세계유산 중 유사유산 가야 고분군 중 발굴된 고분군 보존·관리·활용 측면에서 우수한 고분군</p>
<p>'20.5월</p>	<p>기 등재된 세계의 장묘유산 중 고대국가 형성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산 고대국가 형성기와 중앙집권국가 초기의 중국대륙·일본열도 각국 시기별 대표 유산과 고분군 한반도 각국 시기별 대표 유산과 고분군 가야 각국의 고분군</p>

○ 비교연구 구성 및 논지 전개

<p>'19.7월</p>	<p>·(국내·외) - 동아시아 세계유산 중 유사유산 대상 비교 - 특성별(입지, 군집성, 계층성, 묘제변화, 장례풍습, 부장품과 교류) 비교 ·(가야고분군 중 신청유산 선정) ⇒ 고고학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780개소의 고분군 중 발굴조사를 시행한 104개소 고분군 선정 ⇒ 유산의 OUV에 대한 검토 전에 발굴조사 여부, 사적 지정 여부, 전시관 보유 여부 등 보존·관리·활용 측면 우선 검토, 104개소 중 30개소 선정 ⇒ 신청유산의 소재지로 7개 가야별 중심지를 확정하고 각 지역의 대표고분군을 배정 ⇒ <가야 각국의 중심지 / 입지 · 군집 · 배치 관계 · 내부구조 · 부장유물로 본 지배층 무덤 / 목관묘→목곽묘→석곽묘→석실묘 변화 묘제/부장된 교역품>의 선정기준이 각 고분군에 드러나는 정도 차이에 대한 설명 없이, 7개 가야의 권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해당 기준이 수량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7개 고분군을 신청</p>
---------------	---

<p>'20.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중 고대국가 형성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분 유산 목록 - 중국/일본/한반도 각국 고대국가 형성기~중앙집권기 대표 유산과 고분군 - 각 국을 드러내는 요소들, 그 중 고분군의 의미 ·(가야고분군 중 신청유산 선정) ⇒ 한반도 남부 고분군 중 고분군의 발굴 성과를 통해 다수의 권역을 설정, 해당 권역 내에는 780여곳의 고분군이 분포 ⇒ 기존의 고고학조사에서 고분군의 중요성이 인지되었거나 구릉지 또는 산지의 능선을 따라 대규모 봉토분이 배치되어 고대왕들의 무덤으로 인식되어 온 100여 고분군의 발굴조사 결과, 가야식 묘제와 가야식 토기를 공유함이 밝혀짐 ⇒ 가야 각 국과 가야 연맹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분군 선별을 위해 “묘제”와 “부장품”을 중심으로 비교 ⇒ “묘제”와 “부장품”을 통해 7개 가야를 대표하면서 가야 연맹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7개 고분군을 신청
---------------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산에서의 구체적 근거 제시]

<p>'19.7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지, 경관, 군집, 계층성, 고분의 내부구조, 부장유물
<p>'20.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7개 고분군에서 드러나는 연맹으로서의 요소 - 길고 폭이 좁은 형태의 매장부 평면구조를 유지하는 묘제 조성 방식 - 120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한 가야식 토기의 기종구성과 기형 ·7개 고분군 묘제와 토기에서 드러나는 연맹 내에서의 자율적 요소 - 묘제의 세부적 형식 차이 제시 - 문양과 투창의 세부적 형식 차이 제시

바. 전문가 검토 의견

- 회의일시 : 2020.5.14.(목) 13:30, ○○○센터
- 검토자 :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 검토의견(요약)

- 전체적인 서술 내용이 비교적 잘 정리되고 특히 등재기준과 2장·3장 내용은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여러 차례 수정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등재신청후보의 조건부 해소를 추천함
 - 가야의 역사 및 시대상의 이해를 돕는 서술을 보완하고, 이를 고분군과 연계시켰음
 - OUV를 뒷받침하는 가야의 고분군 속성을 묘제와 부장품으로 집중 서술하여 신청유산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였음
 - 동아시아 유사유산과 국내 유사유산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에 집중한 것은 발전적인 부분임
- 등재 신청 최종 대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술의 논리적 구조와 정합성을 높이는 등 보완과 수정이 필요함

- (등재기준 서술) 전반적으로 연속유산으로서의 가야를 드러낼 수 있는 서술로 개선되었으며, 가야의 특성을 “연맹왕국”으로 구체화하였음. 그러나, 동아시아 고대사에서의 연맹왕국의 의미 및 그 중 가야가 가지는 역사적·유산적 가치 - 왜 세계유산이 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음.
- (신청유산의 설명) 주요 속성을 묘제, 부장품으로 축소하면서 유산의 설명은 명확해졌으나, 유산의 입지나 경관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서술할지에 대해 일부 보완될 필요가 있음. 연맹왕국을 가야의 특성으로 꼽았으므로, 이 부분이 연속유산으로서 전체 유산의 차원에서 혹은 각 유산이 어떻게 이 특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설명방식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묘제와 부장품 부분에서도 동일과 차이로 설명하기보다, 연맹이라는 틀 내에서의 공통성과 자율성의 반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비교연구) 비교연구의 분석대상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집중한 것은 적절하며, 전면적으로 재서술한 점은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비교연구가 각 국가별 양상에 대한 개론적 수준의 나열에 그치고 있음. 입지와 묘제 등 유산의 속성과 연관지어 서술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 가야의 경우 각 소국의 정치적 중심지에 고총고분이 개별 봉분 규모에서 큰 차이없이 비교적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중앙 집권

적 고대국가가 아님(연맹)을 보여주고 있다면, 다른 국가의 고분은 국가의 발달 단계에 따른 차이를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해 속성별로 설명이 필요함. 예를 들어, 국내성 시기 고구려 고분군의 경우 독립 묘역의 형성, 제단, 기와 건축물 등 구성요소의 차이가 있음. 또한 평양성 시기 고구려 왕릉은 능사가 있거나, 정치적 중심지 외곽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임. 이러한 점은 백제에서도 유사함.

사. 소관부서 검토 의견

- 현 심의단계가 최종 등재신청대상 선정의 전 단계인 “후보” 선정 단계임을 고려한다면, 이전 심의에서 지적된 아래의 사항이 상당히 보완되었음.
 - 추진단 내 집필 전담 인력이 보강되었으며, 가야의 역사와 고분군의 연관성에 대한 서술이 보완되었음
 -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유산에 대한 요약이 담기는 ‘3.1. 종합요약’ 및 ‘3.3. OUV 기술문’은 동아시아 고대 연맹왕국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전체 구성이 대폭 개선되었음. 2장의 유산 설명에서는 7개 고분군에서의 공통적 속성(입지, 묘제, 부장품) 성립과정 및 지역별 차이,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교류의 흔적 차이 등이 연맹체계의 발전과정과 특성의 반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이 부분이 3.1장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서술이나, 3.2의 비교연구에서도 좀더 논리적 정합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동아시아 고대국가 형성기의 연맹국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한 서술이 필요함.
 - 비교연구(3.2)의 체계는 전체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가야의 고분군들 중 7개의 고분군을 선정한 논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음. 특히 이전의 신청서가 7가야를 가야사의 전체로 보고 각 고분과 단순 연결함으로써 신청서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었다면, 이번 신청서에서는 여러 가야 권역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분군의 발굴성과를 고려하여 가야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7개 지역과 대표적 고분을 선정함으로써 연속유산의 선정논리 뿐만 아니라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가야사 해석 측면에서의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임. 국내 비교연구에 비해 국외 유산(중국, 일본) 및 동시기 한반도 고대국가의 유산과의 비교는 아직 개선이 필요함. 이번 심의에서 조건부가 해소되더라도 이 부분의 보완 정도가 최종적인 등재신청 대상 선정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유네스코 심사과정에서도 주안점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제시한 OUV를 드러내는 속성을 선정하고, 속성이 유산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 설명을 명확히 하였음. 지난 신청서에서 과도하게 유형화하였던 경관 측면의 서술을 삭제하고, 입지 중심의 공통성을 도출하였으나, 일부 설명으로만 반영되어 있고, OUV 측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음. 이 부분은 향후 서술을 정교화 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은 실제 보존관리 가능성(현재 문화재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고려하여 검증된 것으로 보이나, 유산의 속성 및 현지의 미세 지형을 고려한 미세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완충구역에 포함된 토성 등 유적에 대해서도 기존의 가야 왕성 등 무리한 의미부여를 삭제하였으며, 연맹단계를 증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유적은 고분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어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설정 방식에 대한 논리적 구분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됨.
- 전체적인 신청서의 분량이 다소 긴 편임. 제시된 유산가치를 고려하여 2장의 설명 중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한다면 분량의 축소는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임
- 추진단에서 제출한 보완내용,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 절차

단계	등재신청후보	등재신청대상	등재신청서(초안)	등재신청서 제출
운영 방식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세계유산센터 제출	세계유산센터 제출
기한	-	제출 전년 7월 31일	제출 전년 9월 30일	제출년 2월 1일

아.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을 해소하고,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함
 - 출석 9명 / 원안 가결 9명

붙임

가야고분군 <조건부 가결> 보완 사항 세부 내용

[역사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팀 보강 및 관련 전문가 참여]

~2019.3.21.		2019.4.1.~	
조사연구실장 (고고학)	신청서 작성 총괄	조사연구실장 (고고학)	신청서 작성 총괄
학술연구팀장 (세계유산)	국내외 유산 비교연구	학술연구팀장 (세계유산)	국내외 유산 비교 연구
전문연구원	유산의 보호와 관리	전문연구원 (고고학)	가야고분군 중 유산선정논 리 보완(비교연구)
전문연구원	가야사, 자료 분석 등	전문연구원 (융합콘텐츠)	유산의 보호와 관리
		전문연구원 (세계유산)	국내외 유산 비교 연구
		전문연구원 (고고학)	가야사, 유산 자료 분석 등

[비교연구 재작성]

	2019.3. (조건부 선정)	2019.7. (조건부 해소 부결)	2020.5. (심의 대상)
개설	·매장유적 유형 ·기 등재된 세계유산	·매장유적 유형 ·기 등재된 세계유산	·기 등재된 세계유산 ·정치체제가 드러나는 고분
국내/외 비교연구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사유산 비교> ·사마라텐마키 청동기시대 매장지(핀란드), 아이가이 고고유적지(그리스), 카호키아 마운드 역사유적(미국), 이탈리아 체르벤테리와 타르퀴니아의 에트루리아인 네크로폴리스, 명·청시대 황릉, 고대 고구려왕국	<비교분석 대상의 선정>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장묘 관련 유산 ·유럽과 북미 지역의 장묘 관련 유산 ·아프리카의 장묘 유산 ·아랍국가의 장묘 유산 ·남아메리카의 장묘 유산	<중국대륙의 고분군> ·춘추전국시대 - 취푸의 공자유적 ·진,한시기 - 진시황릉 - 실크로드 중국지역 내 한무제의 무릉 ·위진남북조시대 - 위,진,남북조의 황제릉 <일본열도의 고분군> ·고훈시대

	2019.3. (조건부 선정)	2019.7. (조건부 해소 부결)	2020.5. (심의 대상)
	수도와 묘지,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관련 유산군, 고구려고분군, 개성의 역사기념물과 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즈-후루이치 고분군 -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관련유산 내 심바루·누야마 고분군 ·아스카시대 - 아스카 후지와라 유적 내 다카마쓰즈카고분과 키토리고분
	<p><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사유산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즈-후루이치 고분군, 서하왕릉, 흥노지배층 장지 <p><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주역사유적지구, 백제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조선왕릉 <p><세계유산과 잠정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유산과의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망산 고분군 	<p><동아시아의 비교대상 고분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역사유적지구 - 경주역사유적지구 ·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고분군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시황릉 - 고대 고구려왕국의 수도와 무덤 - 명청시대의 황릉 - 은허유적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노 지배층의 장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관련 유산의 심바루 누야마 고분군 - 모즈-후루이치 고분군 	<p><한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구려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대 고구려왕국의 수도와 묘지 ·고구려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 고분군 ·백제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촌동 고분군 ·백제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송산리고분군과 능산리고분군 ·신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역사유적지구 내 대릉원지구의 고분군 - 경주역사유적지구 내 남산지구의 고분군
		<p><특성별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지, 군집성과 계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분의 입지 - 고분의 군집성 - 사회계층구조의 반영 ·묘제의 변화 ·장례풍습 ·부장유물과 기술사상의 교류 <p><가야고분군과 유사 유산의 연대기적 비교></p>	

	2019.3. (조건부 선정)	2019.7. (조건부 해소 부결)	2020.5. (심의 대상)
분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추정)연대 ·봉토분 규모 ·묘제(목관,목곽,석곽,석실) ·발굴시기 및 발굴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추정)연대 ·봉토분 규모 ·묘제(목관,목곽,석곽,석실) ·발굴시기 및 발굴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야 각국이 가야연맹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유산에서 드러나는 요소들 - 묘제, 토기
가야 각국 고분군 비교의 논리적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고학 지표조사를 통해 780개소의 고분군 확인 ·780개소 중 발굴조사를 통해 성격이 일부 밝혀진 것은 104개소임 ·가야고분군 104개소 중 기준에 따라 23개소 선정 - 국가 사적 또는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었는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①</p> <p>104개소의 고분군에 대해 일률적 기준 적용, 비교표 제시</p> <p>유산의 OUV에 대한 검토 전에 문화재 지정 여부 우선 검토</p>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고학 지표조사를 통해 780개소의 고분군 확인 ·780개소 중 발굴조사를 통해 성격이 일부 밝혀진 것은 104개소임 ·가야고분군 104개소 중 기준에 따라 30개소 선정 - 정밀발굴조사를 통한 충분한 연구 자료 확보 - 유적의 인위적 훼손과 변형의 흔적은 없는가 -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법률적 체계 여부 - 전시관이나 박물관 시설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고분군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①</p> <p>유산의 OUV에 대한 검토 전에 발굴조사 여부, 사적 지정 여부, 전시관 보유 여부 등 보존·관리·활용 측면 우선 검토</p>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남부 고분군 중 묘제와 부장품을 통해 다수의 권역을 설정 ·해당 권역은 문헌상 7개 가야의 지역과 일치하며, 그 범위 내에는 780여곳의 고분군이 분포 ·그 중 기존의 고고학조사에서 고분군의 중요성이 인지되었거나 구릉지 또는 산지의 능선을 따라 대규모 봉토분이 배치되어 고대 왕들의 무덤으로 인식되어 온 100여 고분군의 발굴조사 결과, 가야식 묘제와 가야식 토기를 공유함이 밝혀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①</p> <p>고분군의 발굴 성과를 통해 <가야연맹>의 영역 설정</p> <p>OUV를 드러내는 핵심 속성으로 <가야식 묘제>와 <가야식 토기> 도출</p>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2019.3. (조건부 선정)	2019.7. (조건부 해소 부결)	2020.5. (심의 대상)
	<p>·가야고분군 23개소 중 기준에 따라 7개소 선정</p> <p>·가야 각국의 중심지에 왕궁지나 토성과 인접하여 축조된 고분군</p> <div data-bbox="331 600 662 99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②</p> <p>7개 가야 각 국 중심지에 왕궁지나 토성과 인접하여 축조된 고분군을 선정</p>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p>·목관묘의 군집, 대형 목곽묘의 출현, 왕릉급 고분이 군집된 중심고분군</p> <p>·목관묘-목곽묘-석곽묘-석실묘로 변화하는 묘제를 보여주는 고분군</p> <p>·순장풍습이 드러난 고분군</p> <p>·대외교역품</p> <div data-bbox="331 1518 662 198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③</p> <p>선정 기준이 각 고분군에 드러나는 정도 차이에 대한 설명 없이, 7개 가야의 권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해당 기준이 수량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7개 고분군을 신청</p> </div>	<p>·가야고분군 30개소 중 기준에 따라 7개소 선정</p> <p>·가야 각국의 중심지에 축조</p> <div data-bbox="703 600 1034 99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②</p> <p>신청유산의 소재지로 7개 가야별 중심지를 확정하고 각 지역의 대표고분군을 배정</p>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p>·목관묘의 군집, 대형 목곽묘의 출현, 왕릉급 고분이 군집된 중심고분군</p> <p>·목관묘-목곽묘-석곽묘-석실묘로 변화하는 묘제를 보여주는 고분군</p> <p>·순장풍습이 드러난 고분군</p> <p>·대외교역품</p> <div data-bbox="703 1518 1034 198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③</p> <p>선정 기준이 각 고분군에 드러나는 정도 차이에 대한 설명 없이, 7개 가야의 권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해당 기준이 수량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7개 고분군을 신청</p> </div>	<p>·각 가야의 특성이 반영된 가야식 묘제와 토기의 분포영역은 7개의 가야가 위치하는 7개의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음</p> <div data-bbox="1075 600 1406 99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②</p> <p>가야 각 국과 가야 연맹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분군 선별을 위해 “묘제”와 “부장품”을 중심으로 비교</p>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p>·가야연맹을 구성했던 7개 가야의 특성을 드러내는 묘제와 부장품이 가야 각 국별 고분군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7개 가야 각 국 단위로 비교</p> <div data-bbox="1075 1518 1406 198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③</p> <p>7개 가야를 대표하면서 가야 연맹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7개 고분군을 신청</p> </div>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산에서의 구체적 근거 제시]

유산	의미	구체적 근거	
7개 고분군	가야연맹의 성립과 발전, 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릉지 능선을 따라 고분이 입지 ·권력의 크기를 고분군 내 군집과 배치로 표현 ·길고 폭이 좁은 형태의 매장부 평면구조를 유지하는 묘제 조성 방식 ·120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한 가야식 토기의 기종구성과 기형 	
대성동고분군	가야연맹의 성립과 전기가야연맹 세력의 확대	연맹으로서의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관묘, 목곽묘, 석곽묘, 와질토기, ·가야식 토기의 출현과 확산
		연맹 내에서의 자율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곽과 부곽으로 분리된 대형 목곽묘 ·철제 무기, 주변국에서 수입된 부장품 ·외절구연고배
말이산고분군	전기 가야연맹과 후기 가야연맹의 연속성	연맹으로서의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관-목곽-석곽-석실로 변화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조성된 세장한 형태의 고분 ·곡선의 기형과 두드림무늬가 선명한 단경호
		연맹 내에서의 자율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봉토분의 연속적 조성, 들보시설 ·통형고배와 화염형 투창고배
옥전고분군	가야연맹의 개방성	연맹으로서의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장한 형태의 목곽묘과 석곽묘 ·금관가야식 목곽묘, 대가야식 석곽묘, 백제/신라계통의 석실묘 ·다양한 교역품으로 구성된 부장품
		연맹 내에서의 자율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부곽식 구조의 다라국식 석곽묘 ·다투창 고배
지산동고분군	후기 가야연맹의 성장과 발전, 전성기	연맹으로서의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장한 형태 석곽묘(주곽,부곽), 궁륭형 천장의 석실묘, 대가야식 석실묘 ·뱀모양 장식 통형기대, 나팔상 대각, 긴목 향아리 등 대가야식 토기
		연맹 내에서의 자율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 정상부에 대형 봉토분들이 대규모 군집을 이룸 ·다량의 위세품, 다양한 용도의 석곽, 순장
송학동고분군	후기 가야연맹의 국제적 성장	연맹으로서의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장한 형태로 다수의 석곽을 하나의 봉분에 조성하는 소가야식 석곽묘 ·원통형 기대 등 국제교류 반영 토기
		연맹 내에서의 자율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와 일본계열의 분구묘와 석실묘 ·삼각형 투창고배, 수평구연호 등 소가야식 토기

유산	의미	구체적 근거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가야연맹의 소멸과 신라의 관계	연맹으로서의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야식 석곽묘를 기본으로 석실묘의 출입구 시설이 결합된 횡구식 석곽묘 ·가야식토기 제작기술과 신라토기 형식이 결합된 토기 ·신라식 석실묘, 토기, 위세품
		연맹 내에서의 자율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야식 세장방형석곽묘, 횡구식 석곽묘, 신라계통 적석총, 신라계통 표형분 ·짙은 흑색에 대각형태의 꼭지를 부착한 비화가야식 토기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가야연맹의 소멸과 백제의 관계	연맹으로서의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곽과 부곽, 배장곽이 나란히 축조된 대가야식 석곽묘, 소가야식 석곽묘 ·기문국식 토기, 대가야식, 소가야식 토기 ·백제식 석실묘, 위세품
		연맹 내에서의 자율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 희생의례의 흔적이 드러나는 묘제 ·삼각형투창 발형기대 등 기문국식 토기

보 고 사 항

1.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현황 보고

가. 보고사항

기 등재된 세계유산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2015년 이후,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효과적 수단으로 각 국가의 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 제도화를 장려해오고 있으며, 개별 유산의 보존관리 검토시 인근의 개발계획 혹은 신규 사업계획에 대해 유산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및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등재결정문>에 따라, 유산 주변에서 예정된 개발사업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를 추진하면서, HIA를 이행하였음
- 이에 각 사업의 진행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다. 대상 및 진행 경과

유산명	사업명	경과 및 향후 계획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 공산성)	제2금강교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12월)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심의 : 부결 ○(‘19.4월~‘20.4월) 유산영향평가(HIA) 시행 [공주시] ○(‘20.5.13.)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심의 : 보류 - 교량폭 최소화, 교량 디자인 등에 대한 자료 보완 후 재검토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3월) 사업계획 알림 (문화재청→세계유산센터) ○(‘19.7월) 유산영향평가(HIA)시행 권고 (세계유산센터→문화재청) ○(‘19.12월~‘20.4월) 유산영향평가(HIA) 시행 및 보고서 제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해남군) ○(‘20.4.10.) 유산영향평가(HIA) 결과 제출 (해남군→문화재청→외교부→세계유산센터)

라. 참고사항

◇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72항

172. 세계유산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이 협약에 근거해 보호 중인 지역에서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복원사업이나 신규 건설사업을 시행 또는 허가하는 경우 그 의도를 사무국을 통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통지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가령 특정 사업에 대한 기본 문서 작성 전) 또는 번복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 위원회가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18.7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등재시 권고사항

(이코모스 평가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을 포함해) 본 연속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찰 경내 모든 신규 건설사업은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72항에 따라 세계유산센터에 알림

* 이코모스 평가보고서의 언급 내용 : 마곡사(승려들이 임시 사용하는 샤워시설 교체)와 대흥사(국방에 있어 절의 역사적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새 단층건물), 범주사(사리각의 원 위치를 밝히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발굴에 이어 건물 한 동 신축)

마. 의결사항

○ 원안 접수

- 출석 9명 / 접수 9명